

PEOPLE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애국지사 신유선 후손 위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1일 보훈가족 위문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광주지방보훈청과 연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고동우 위원장은 신유선 애국지사의 유족 신예중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전남 곡성 출생인 신유선 애국지사(1894년 10월 3일~1982년 2월 20일)는 1920년 8월 자택에서 군자금 모집에 관한 편지를 받고 군자금 조달에 힘쓰는 등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했고, 1920년 11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신예중 여사는 “독립운동에 동참한 할아버지를 기억해주고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선수들 청렴·반부패 교육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일 전남체육회관 1층에서 전직원 및 소속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2025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조직 내 반부패 및 직장 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연수원에서 초빙한 전문강사인 강동준(전남 개발공사) 강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과 함께 직장 내 갑질 금지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기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평소 업무 현장에서 느꼈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고민까지 질문했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농협 광양시지부
보훈대상자 가정에 농산물 전달

농협 광양시지부는 최근 보훈의 달을 맞아 4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보훈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전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이두식 농협 광양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두식 농협 광양시지부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보훈 대상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국립목포대, 육상부·탁구부 창단

육상 16명·탁구 5명 선수 등 지도자 구성
엘리트 체육 육성·지역 체육 발전 새출발

국립목포대학교가 육상부와 탁구부를 창단했다. 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11일 오후 2시 70주년 기념관 정상목극제컨퍼런스룸에서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체육회, 전남육상연맹, 전남탁구협회, 무안군체육회, 목포시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체육단체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김주연 한국대학탁구연맹 회장, 박용수 전남탁구연맹 회장, 김용주 전남육상연맹 회장, 류준호 무안군체육회장, 김성대 목포시체육회장 등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창단을 축하하고, 힘찬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창단식에서는 전남 지역 체육단체의 후원금 전달식과 목포대 체육학과 총동문회 및 목포시청 육상부 감독의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선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국립목포대 육상부는 지도자 3명과 선수 16명, 탁구부는 지도자 2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됐으며, 선수단은 이미 여러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11일 70주년 기념관 정상목극제컨퍼런스룸에서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식을 개최하고,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박희석(체육학과 교수) 체육부장은 “창단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대학 관계자들과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전남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체육을 선도하는 명문 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육상부와 탁구부의 창

단은 대학 스포츠 발전과 지역 체육 저변 확대, 나아가 우수 체육 인재 양성이라는 공적 역할을 실현하는 뜻깊은 계기다”며 “체육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앞으로도 전문 지도진 확충, 학사-훈련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 체육 유망주 조기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번 창단식은 국립목포대가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체육 생태계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공공성 기반 체육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동아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성료

“지역사회와 30년...관절전문 종합병원으로 성장”

동아병원(대표원장 이경호)은 최근 병원 내 동아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경호 대표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좌자, 의료진,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30주년을 축하하며 병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개회식 선언과 함께 이 대표원장의 기념사, 슬로건 공모 시상, 3·5·10·15년 장기근속자 표창·포상금 수여,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지역 아동 희망기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원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장기근속자

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향후 30년을 향한 방향성과 의지를 담은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이경호 대표원장은 “30년 간 병원이 발전해온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동아병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광주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동아병원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동아병원은 최근 이경호 대표원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내 동아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광주 유일의 관절전문 종합병원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편, 동아병원은 개원 이래 진절과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버팀목으로 성장해왔다.

광주과학관·사학연금공단, 과학문화 확산 협력

지역사회 과학 인재 육성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과 지역사회 과학 인재 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이정구 관장과 송하중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역 내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남권역 과학문화 확산 및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이동과학관 행사 추진’, ‘사학연금 가입자 대상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대’ 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과학문화 진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구 관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이베스지(ESG)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BTS 지민·정국 전역 “군대 쉽지 않아...기다려줘 감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박지민)과 정국(전정국)이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지민과 정국은 11일 오전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전역한 뒤, 인근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팬들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이날 오전 8시께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과 팬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걸어오자 모여 있던 500여명의 팬이 환호와 함성을 터트렸다. 지민과 정국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건넨 꽃다발을 두 손 가득 안고 밝은 미소로 팬들을 맞이했다.

지민은 “코로나19부터 군대까지 꽤 긴 시간이었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가 그려 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었다”며 “지나가다가 군인분들을 보시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국은 “카메라 앞이 오랜만이라 화장도 안 해



BTS 지민과 정국이 11일 경기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팬들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뽀빠리

서 민망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은 후임과 조금 일찍 전역한 동기들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설운동장으로 향하는 군내 곳곳에는 지민과 정국을 전역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줄지어 걸렸다. 국내의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대 인근과 행사장 주변에 모여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두 사람의 전역을 축하했다.

연합뉴스



동구 지원1동, 아파트공동체 교류·협력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 지원1동 주민자치회(회장 기연서)는 최근 동 북한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 내 13개 아파트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살기 좋은 지원1동’을 만들기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동신대, 취업 경쟁력 높이는 기업분석 경진대회 개최.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안민주)는 최근 정보전산센터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키울 ‘2025년도 기업분석 경진대회’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동신대